

동교동계 '김홍업 밀어주기'

박지원씨 주내 무안·신안 방문 지원

민주당도 지지... 지역 여론 반발 최대 걸림돌

동교동계가 4·25 무안·신안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지역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김홍업 카드' 밀어 붙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17대 총선 이후 몰락한 동교동계는 이번 김홍업 카드를 계기로 여론 대통합을 주도하는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출마를 바라보는 지역여론은 싸늘하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동교동에 복귀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번주에 무안·신안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이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무안·신안지역 나들이는 김홍업씨 지원을 위한 것이며 이는 김 전 대통령의 복심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교동계의 맹형민 권노갑 전 고문도 김씨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 전 고문은 지난 16일 배기운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씨가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배기운 민주당 사무총장은 18일 "김씨를 민주당 후보로 영입하면 타 정당에 후보를 내지 않고 지원하는 형태의 연합공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갑 전 대표도 김씨의 출마를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윤철상, 정철기,

이훈경 전 의원 등 동교동 출신 정치인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 같은 동교동계 인사들의 '김홍업 밀어주기'에는 17대 총선 이후 몰락한 동교동의 부활이라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바로 김씨 밀어주기를 통해 통합신당 창당을 실질적으로 주도, 동교동계의 미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동교동계의 계산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이다. 당장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은 김홍업씨의 연합공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속앓이를 하고 있지만 결국 김씨를 연합공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치공학적 김홍업 밀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여론의 반발이라는 최대의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만약, 연합공천이 이뤄지지 않고 김홍업씨가 낙선할 경우 동교동은 다시 한번 몰락하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김 전 대통령에 돌아갈 것으로 가능성도 높다.

김씨의 출마에 대한 광주·전남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부에선 '낙선운동'까지 거론할 정도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도 김씨가 출마 선언과 함께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직후인 지난 16일 성명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한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이 지난 17일 동교동 김 전 대통령 사저 접견실에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통해 "김씨의 보선 출마는 민주평화개혁세력에 대한 능욕"이라며 "굳이 출마를 강행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전남본부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결심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치권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교묘히 이용하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 52개 시민·사회단체도 8일 성명을 통해 김씨의 출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늦어지는 17대 대선 대진표

한나라 '8월21일-20만명' 확정 범여권 8월말쯤 대선후보 선출

각 당 유력 후보 선거전략 수정 나서

17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대진표'가 역대 대선 때보다 늦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선거진영에서는 이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분주한 상황이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선거전략을 수정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늦어지는 대선 대진표=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위원장 김수환)는 1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근을 벗어난 경선 룰과 관련, '8월21일-20만명'안을 확정했다. 또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등 범 여권은 5월까지 통합신당을 창당, 8월말이나 9월 중순께 대선후보를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올해 대선 후보 윤곽은 빨라야 8월말께 이후에나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6대 대선의 경우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선거 8개월 전인 4월27일 후보로 확정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5월10일 후보로 공식 지명됐던 데 비하면 올해 대선후보 확정은 4개월가량 지연되는 셈이다.

◇각 당 이해득실=한나라당의 경우 경선이 당헌 규정보다 사실상 두 달 정도 늦어진 데 대해 당내에선 유력 후보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막강한 양대 대선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대선후보 선출시기를 늦춰 정국

주도권 장악 기회를 지연시킨 것은 전략상 마이너스라는 지적이다.

또 당내 경선전이 장기화하면서 상대 주자에 대한 검증 공세가 재연될 경우 본선에 나서기도 전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이천주구식 '집안 싸움'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후보 확정 이후 범여권이 집중할 네거티브 캠페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점으로 분석된다.

범 여권의 경우도 한나라당 경선 시점 연기에 따른 선택은 복잡하다. 우선 우리당에서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이미 '카드'를 다 내놓은 만큼 후보 확정이 지연될수록 식상함만 늘어나고 과열경쟁에 따른 비판도 커질 것이라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후보 선거전략 수정 =6월(개최)-4만명(선거인단)이었던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 룰이 '8월-20만명'으로 변경되면서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 대선주자들의 경선 전략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두 주자는 그간 전국을 돌며 당원·대의원 수백명과 매일 접촉하는 '당심잡기' 강행군을 벌여왔지만 경선 룰 변경을 감안, 다소 여유를 갖고 내실을 다지며 일반 국민 접촉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운동의 기조를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내일 거취 밝힐 듯

경선 중재안 거부 탈당 가능성 높아... 정치권 긴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20일께 자신의 거취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손 전 지사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한 발 더 나아가 탈당을 결행할 경우 대선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며 범여권의 정계개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손 전 지사가 경선 불참 선언한다면 남은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번째 안은 당에 남아 백의종군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길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싸움을 지켜보며 시간을 버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두 주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놓인다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8월, 20만명' 경선 중재안을 들고 민담을 청한 것까지 손 전

지사가 거부한 것은 경선 불참에 이어 탈당까지 결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손 전 지사의 핵심 측근도 "손 전 지사는 경선 참여 여부라는 작은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손 전 지사가 경선 불참과 탈당에 이어 중도 성향의 '제3세력'을 규합해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 있다.

한편, 범여권에서는 한나라당내 개혁 진영을 대표하던 손 전 지사가 경선에 불참과 탈당을 선언한다면 한나라당 우세의 대선 구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느냐는 기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쟁 구도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양자 대결로 고착화, 보수 색채가 더욱 강화되면서 한나라당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범여권에서는 각기 손 전지사와의 밀접 연락망을 총 가동, 탈당 결행 이후 범 여권 통합의 중심에 서달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천정배 "孫 탈당후 신당창당 동참 가능"

정동영·김근태 탈당 촉구 범여권주자 연석회의 제안



대 전 의장이 함께 탈당, 신당 창당을 추진했다면 지금쯤 새 관을 쓸 수 있었을텐데 우리당은 아직도 자기들이 통합을 주도한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나와야 하며 이미 나왔어야 했다. 할까봐 상대에서 연석회의를 함께 추진한다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기 탈당을 촉구했다.

중대 결심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탈당을 해서 대통합신당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면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컨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후보 선출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도 그분의 선택에 따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남북정상회담 이명박에 유리"

사회동향연구소 조사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76.7%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동향연구소는 지난 16일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대는 19.3%, 모름 또는 무응답은 4%였다.

'남북회담이 열린다면 대선주자 중 누가 가장 유리할 것인가'란 물음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란 답변이 1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17.6%),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12.2%) 순으로 집계됐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것 같은 후보'로는 이 전 시장 35.3%, 박 전 대표 16%, 정 전 대표 8.5% 등으로 나타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4월 2일 첫진도 개강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고용보험재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227-8003 (구도청 앞 천일빌딩 뒤)

첨단점 971-0002 (빅마트 횡단점 옆 광주은행 4F)

국비무료모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주택관리사·사무자동화·정보화기초1,2

자격과과정(교육구분)	교육내용(교육시간)
주택관리사(월~토)	단반, 회계원리, 관리법규, 관리실무, 시설기준 (19:00~22:30)
주택관리사 주말반(토·일)	단반, 회계원리, 관리법규, 관리실무, 시설기준 (토14:00~18:00, 일 10:00~17:00)
사무자동화(월~금)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실기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 활용

기타 사항

- 모집대상: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
- 기타사항: 수수료 100% ~ 80% 환급
- 시험: 수강필차: 훈련수당 → 훈련수당신청서 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현대직업전문학교

224-4560, 224-4580, 232-1088

★ 위치: 전남고교 건너편 김재규 경향학원 3층 ★ http://www.hdaedu.co.kr

국가직/ 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5월 12일 시행

광주교행 72명

문제풀이·이론강좌 개강: 4월 2일

5월 12일 시행

광주소방직 64명

문제풀이·이론강좌 개강: 4월 2일

10월 ~ 12월 중 전남 교육행정직 180명 모집예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4월 2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 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 1위!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www.kjkimyong.co.kr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2008년 현업시험 대비반 개강(기초과정)

= 개강: 3월 5일 =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3월 5일(월)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3월 5일

개설과목: 영어/영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현문/한의학

김영대학면임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0088

www.kjkimyong.co.kr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2008년 현업시험 대비반 개강(기초과정)

= 개강: 3월 5일 =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3월 5일(월)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3월 5일

개설과목: 영어/영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현문/한의학

김영대학면임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0088